

# 전통색으로서의 오방색 적용 인정 조건에 대한 고찰

## A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s to Accept as Korean Traditional Colors Using Obangsaek

주저자

구본영 (Koo, Bonyoung) bon09@ptu.ac.kr

평택대학교 문화예술대학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 부교수

Professor, Pyeongteak University

투고일	2023.09.07	심사일	2023.10.17	게재확정일	2023.10.25
-----	------------	-----	------------	-------	------------

# 전통색으로서의 오방색 적용 인정 조건에 대한 고찰

## A Consideration of the Conditions to Accept as Korean Traditional Colors Using Obangsaek

### 목 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선행연구
  3. 오방색
    - 3-1. 오방정색과 오간색
    - 3-2. 오행설과 오방색
  4. 오방색과 관련한 기록
    - 4-1. 현대의 매체에 언급된 오방색
    - 4-2. 조선왕조실록 상의 오방색 관련 기록
    - 4-3. 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한 토론
  5. 오방색 색상의 범위 고찰
    - 5.1. 청색(靑色)의 범위
    - 5.2. 적색(赤色)과 홍색(紅色), 자색(紫色)
    - 5.3. 오방색의 범위
  6. 전통색의 판단조건
  7.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Many studies and books treat the "obangsaek" as part of Korean traditional colors, consisting of 청(blue, sometimes refer to grue), 적(red), 황(yellow), white, and black. Each color of them is classified as jeongsaeks (right colors). However, it is wondering if using obangsaek could be

traditional because of the worldwide use of those colors. The concept of the obangsaek is derived from the traditional East Asian belief in the Five Elements. In this belief system, everything is judged in relation to five elements: fire, water, wood, metal, and earth. The five cardinal directions (east, west, south, north, and center) also symbolize these elements, and the five colors are seen as representing each of these directions. In the Joseon Silloke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the term "bangsaek" (meaning "directional color," referring to the obangsaek) appears as general vocabulary. This means the term has been widely used. And on a record in the Joseon Silloke, 벽(blue-green) treated as a 청. Assuming that the obangsaek includes only blue, red, yellow, white, and black, obangsaek can't be traditional colors because of extremely rare cases. Provided that 청 means grue, obangsaek includes almost all high saturation colors. Therefore it can be judged that simply using jeongsaeks cannot be traditional. Only when it is imbued with meaning and applied in connection with the Five Elements theory, the application of the obangsaek can be considered as a continuation of tradition.

**keyword**

Korean traditional colors, Condition of tradition, Obangsaek, Jeongsaek, Okansaek

**논문요약**

많은 연구와 서적에서 오방색을 한국의 전통색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오방색에 해당하는 청, 적, 황, 적, 백, 흑(靑, 赤, 黃, 白, 黑)색을 사용함을 전통색의 계승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색들은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어 온 색이다. 이에 고문헌 고찰을 통해 오방색을 전통색으로 칭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오방색은 오행 사상에 기반하여 파생된 개념이다. 오행 사상에서는 만물을 화, 수, 목, 금, 토(火, 水, 木, 金, 土) 다섯 가지 요소와 연계하여 판단하는데, 동서남북(東西南北) 사방과 중앙(中央)의 다섯 방위 역시 오행의 각 요소를 상징하며, 다섯 가지 색에 각각의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방색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오방색을 의미하는 방색이라는 표현이 일반 어휘로 사용되어있어, 방색의 개념이 조선시대에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오방색이 적용되었다고 평가되는 단청의 주색은 녹색(綠色)과 벽색(碧色)이다. 또, 세종실록에는 벽색(碧色)을 동쪽의 색으로 언급한 점에 비추어, 청색(靑色)의 범위에 벽색(碧色)과 녹색(綠色) 계열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오방색을 파랑, 빨강, 노랑, 흰색, 검정색에 국한한다면 다섯 색만 사용된 사례는 극히 드물어 보편적 사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전통이라는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청색(靑色)의 범위에 벽색(碧色)과 녹색(綠色)이 포함된다면 거의 모든 원색이 포함되는 격이다. 결국 오방색에 포함된 색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전통을 계승하였다 말할 수 없다. 오직 색에 오행설과 연계한 의미를 부여·적용했을 때만 오방색을 적용한 전통의 계승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한국 전통색, 전통의 조건, 오방색, 오방정색, 오간색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여러 연구와 대중매체에서 오방색을 한국 전통색으로 언급하고 있다. 2023년 1월27일 현재 학술정

보서비스(riss.kr)에서 “오방색”을 통합 검색하면 1,270건이 나타날 정도로 많은 연구와 도서 등에서 오방색을 언급하고 있다. “오방색”을 검색 후 ‘결과 내 재검색’으로 “전통색”을 검색하면 800건

이 나타난다. 이는 오방색을 전통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본 연구자는 오방색을 전통색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의심한다.

한국 전통이라는 수식어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그런데 오방색은 청색(靑色), 적색(赤色), 황색(黃色), 백색(白色), 흑색(黑色)의 5가지 색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색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색들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사용되어온 색들이다.

그렇다면 오방색을 한국 전통색이라 칭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만약 오방색을 한국 전통색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오방색 적용의 어떤 특징이 한국 전통색으로 인정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를 위해 우선 오방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방색의 정의와 선행연구자들의 오방색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고문헌 고찰을 통해 오방색의 개념이 근대 이전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왔는지 알아보고, 오방색의 영역에 포함되는 색상의 영역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방색이 동양문화권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된 색과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함으로써, 오방색을 전통색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만일 오방색의 사용을 전통의 계승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2023년 1월27일 현재 학술정보서비스 riss.kr에서 “오방색”을 통합 검색하면 1,270건(국내학술논문 288건, 학위논문 662건, 단행본 295건, 연구보고서 24건, 공개강의 1건)이 나타날 정도로 많은 연구와 문헌에서 오방색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다시 “오방색”과 “전통색”이 함께 포함된 정보를 검색하면 800건(국내학술논문 174건, 학위논문 503건, 단행본 110건, 연구보고서 13건)이 나타난다.

이들 중 2022년 발표·발행된 자료에서 “오방색”을 언급한 경우는 학술논문 11건, 학위논문 16건, 단행본 2건으로 총 28건이며, “오방색”과 “전통색”을 함께 언급한 경우는 학술논문 6건, 학위논문 13건, 단행본 2건이 검색된다.

2022년 발행된 학위논문 중 “오방색”이 언급된 16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대석(2022)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오방색을 직·간접적으로 한국 또는 중국의 전통색으로 규정하거나 전제하고 있다.

한대석은 무신도에 오방색이 적용되었음을 서술하였을 뿐 오방색이 전통색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sup>1)</sup> 이들 연구 중 대부분에서 유물이나 타인의 작품 또는 자기 작품 등에 오방색의 다섯 가지 색을 적용하거나 오방색 중 일부 색을 적용한 것을 들어 오방색을 적용한 작품으로 언급하였다. 오방색이 상징하는 방위 또는 상징성을 기준으로 작품을 해석한 경우는 서예술<sup>2)</sup>이 유일하다.

이러한 상황은 대중뿐만 아니라 전문가그룹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오방색을 전통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오방색에 포함된 색을 사용하는 것은 전통을 계승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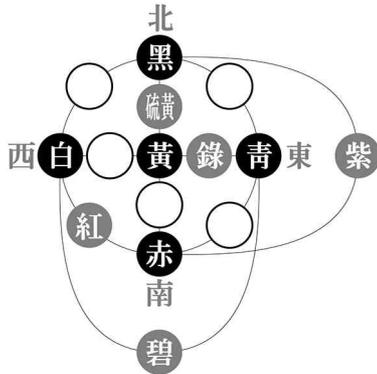
그렇다면 오방색은 어떤 색이며 오방색과 전통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오방색

### 3.1. 오방정색과 오간색

오방색(五方色)은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색을 말한다. 즉, 청색(靑色)은 동(東), 적색(赤色)은 남(南), 백색(白色)은 서(西), 흑색(黑色)은 북(北)쪽을 상징하며 황색(黃色)은 가운데(中央)를 상징하는데<sup>3)</sup> 이 다섯가지 색을 오방정색(五方正色)이라 한다. 그리고 오방정색들 사이에 있는 색을 오간색(五間色) 또는 오방잡색(五方雜色)이라 한다. 온라인 두산백과에 의하면 황색(黃色)과 청색(靑色) 사이에 있는 녹색(綠色), 백색(白色)과 적색(赤色) 사이의 홍색(紅色), 청색(靑色)과 백색(白色) 사이의 벽색(碧色), 적색(赤色)과 흑색(黑色) 사이의 자색(紫色), 흑색(黑色)과 황색(黃色) 사이의 유향색(硫黃色)이 오간색에 해당한다.<sup>4)</sup> 이를 바탕으로 해석

하면 황색(黃色)과 적색(赤色) 사이의 색인 오렌지 색은 오방색에도 오간색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백색(白色)과 흑색(黑色) 사이, 백색(白色)과 황색(黃色) 사이, 흑색(黑色)과 청색(靑色) 사이, 청색(靑色)과 적색(赤色) 사이의 색 역시 마찬가지다. 오방정색과 간색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오방정색과 오방간색의 관계도

### 3.2. 오행설과 오방색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은 우주 만물이 음양과 오행의 원리에 따라 생성되고 움직인다는 동양의 사상이다. 오방색은 동양의 사상을 지배해온 음양오행설을 기반으로 한다고 한다. 유교의 경전 중 하나인 서경(書經)에 오행(五行)이란 글자가 처음 나오는데 물(水), 불(火), 나무(木), 쇠(金), 흙(土)을 만물을 생성하는 다섯 가지 원소(또는 氣)로 보았다.<sup>5)</sup> 이렇게 다섯 가지 원소가 순환하는 것을 음양오행의 “五行”이라 한다.

<표1> 오행과 오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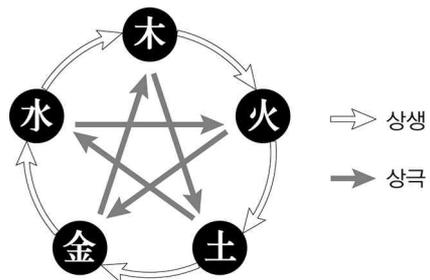
오행	오방	오색
나무 木	동쪽 東	청색 靑
쇠 金	서쪽 西	백색 白
불 火	남쪽 南	적색 赤
물 水	북쪽 北	흑색 黑
흙 土	가운데 中央	황색 黃

오방색의 다섯 가지 색은 오행의 다섯 가지 원소와 짝을 이룬다. 동쪽을 의미하는 청색(靑色)은 나무를, 서쪽을 의미하는 백색(白色)은 쇠를, 남쪽을 의미하는 적색(赤色)은 불을, 북쪽을 의미하는 흑색(黑色)은 물을, 중앙을 의미하는 황색(黃色)은 흙을 상징한다.<sup>6)</sup>

이 외에도 오행은 계절(五季), 맛(五味), 장기(五臟) 등 세상 만물과 만사를 상징하며, 이러한 상징은 오방색과 공유한다.<sup>7)</sup>

그런데 상생과 상극 관계는 오행을 통해 만사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된다. 즉 상호 관계에 따라 발전시키고 조장시키는 상생의 관계와 서로 상충하여 해를 끼치는 상극의 관계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오행 사상이다. 즉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이라 하여 상생 관계를 나타내며, 목극토(木剋土), 토극수(土剋水), 수극화(水剋火), 화극금(火剋金), 금극목(金剋木)라 하여 상극관계로 해석한다.<sup>8)</sup>

이러한 오행사상의 상생관계를 바탕으로 색상과의 조화를 해석하면 金에 해당하는 백색(白色)과 水에 해당하는 흑색(黑色)의 관계는 상생 관계인 金生水에 해당하여 백색(白色)이 흑색(黑色)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水에 해당하는 흑색(黑色)이 木에 해당하는 청색(靑色)을 살려주며, 木의 청색(靑色)이 火의 적색(赤色)을, 火의 적색(赤色)이 土의 황색(黃色)을, 土의 황색(黃色)이 金의 백색(白色)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된다.



<그림 2>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도

이와 반대로 상극관계를 살펴보면 木에 해당하는 청색(靑色)은 土에 해당하는 황색(黃色)을 해치고, 土의 황색(黃色)은 水의 흑색(黑色)을, 水의 흑색(黑色)은 火의 적색(赤色)을, 火의 적색(赤色)은 金의 백색(白色)을, 金의 백색(白色)은 木의 청색(靑色)을 해치는 색으로 해석된다.

### 4. 오방색과 관련한 기록

특정한 생활양식 등이 얼마나 오랜 기간 사회에 널리 지속되어왔느냐 하는 것은 전통문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다.

#### 4.1. 현대의 매체에 언급된 오방색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sup>9)</sup>를 통해 검색하면 1920년부터 1999년까지 “오방색”이 언급된 기사는 109건이 나타난다.

이 검색결과에 따르면 오방색이 언급된 최초의 신문기사는 1980년 7월 22일자 경향신문 기사다. 이 기사에서 현대 미감에 맞지 않는 오방색 채색을 지양해야 한다는 한옥근의 말을 전하고 있다.<sup>10)</sup> 한편 1982년 2월 2일 조선일보에서는 오방색을 전통색으로 간주하고 오방색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였다. 이 기사는 오방정색을 “赤 靑 黃 白 玄(黑)”이라 하였고, “錄 紅 壁 紫 驪黃(硫黃의 오기로 보임)” 등을 간색이라 불렀다고 적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의 사신도가 오방색 사용의 예라 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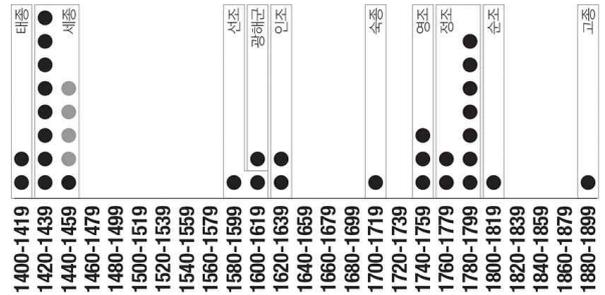
한편, 오방색이 집중적으로 검색되는 시기는 1990년대 후반이다. 1999년까지 오방색이 언급된 109건의 기사 중 86건(79%)이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의 기사에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시기의 기사에서 오방색은 전시회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사용한 색의 의미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작품에 원색적인 색이 사용되었음을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은 작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자가 오방색이 언급된 기사가 언급한 작가 중 1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글 검색을 통해 살펴본 결과 작품들이 원색적인 색이 주조를 이루는 특징이 있었을 뿐, 색과 오행 사상에 기반한 상징의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오방색을 적용한 전통의 계승이라는 기조 아래 작성되는 경향을 보였다.

#### 4.2. 조선왕조실록 상의 오방색 관련 기록

조선왕조실록 원문검색 사이트에서 “五方色”을 검색하면 선조실록 36년(1603년) 4월 1일 丁亥 2번째 기사에 일식이 일어난 것과 관련하여 오방색 기를 세웠다는 기록이 유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오방색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인 “方色”이라는 표현은 41건이 검색되는데, 이 중 6건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한자 문서의 특성으로

인해 “方”자와 “色”자가 우연히 붙어있어 검색된 것으로 오방색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실제 오방색과 관련된 기사는 35건이다.

역대 왕조실록 중 “방색(方色)”이라는 표현이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세종과 정조 때다. 세종실록에는 12개 기사(34%)에, 정조실록에는 9개 기사(26%)에 “방색(方色)”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림 3> 시기별 조선왕조실록 상 “方色” 언급 횟수

조선왕조실록 상 “방색(方色)”이란 표현이 사용된 최초의 것은 태종 6년(1406) 3월 24일 기사로 “其變之之法, 鑽燧而改. 榆柳靑, 故春取之, 杏棗赤, 故夏取之, 至季夏而土旺, 故取桑柘黃色之木. 柞櫨白, 槐檀黑, 故秋冬. 各隨其時之方色而取之”<sup>12)</sup> “그 변하게 하는 법은 찬수(鑽燧)하여 바꾸는 것인데, 느릅나무[榆]와 버드나무[柳]는 푸르기 때문에 봄에 불을 취하고, 살구나무[杏]와 대추나무[棗]는 붉기 때문에 여름에 취(取)하고, 계하(季夏)에 이르러 토기(土氣)가 왕성하기 때문에 뽕나무[桑]와 산뽕나무[柘]의 황색(黃色) 나무에서 불을 취(取)하고, 작유(柞櫨)는 희고 괴단(槐檀)은 검기 때문에 가을과 겨울에 각각 그 철의 방위 색[方色]에 따라 불을 취하는 것이다.”<sup>13)</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에 비추어 보면 1. 方色은 五方色을 의미하며, 2. 늦어도 조선 초기부터 다섯 계절과 다섯 개의 方色을 연계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상에서 방위와 연계하여 색상을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 10년(1428년) 10월 26일 병조에서 계(啓)한 내용이다.

“三軍旗色, 中軍紅, 左軍靑, 右軍白, 靑與黑相似. 謹稽古制, 杜氏《通典》、唐《衛公》李靖兵法曰: ‘諸軍掌五旗, 各準方色, 赤南方火, 白西方金, 皂北方水, 碧東方木, 黃中央土.’ 乞依此制靑色代以碧色”<sup>14)</sup>

“삼군(三軍)의 기색(旗色)이, 중군(中軍)은 홍색(紅色)이요, 좌군(左軍)은 청색(靑色)이며, 우군(右軍)은 백색(白色)이온데, 청색이 흑색과 서로 유사하옵기로 삼가 고제(古制)를 상고하온즉, 《두씨통전(杜氏通典)》과 당나라 이정(李靖)의 《이위공병법(李衛公兵法)》에 이르기를, ‘모든 군사는 다섯 가지 기(旗)를 맡되, 각기 그 방색(方色)에 의하여 하나니, 적색(赤色)은 남방의 화(火)를 상징함이요, 백색은 서방의 금(金)을 상징함이요, 조색(皂色)은 북방의 수(水)를 상징함이요, 벽색(碧色)은 동방의 목(木)을 상징함이요, 황색(黃色)은 중앙의 토(土)를 상징함이다.’ 하였사오니, 바라운건대 이 제도에 의하여 청색을 벽색으로 대체하도록 하소서.”<sup>15)</sup>

이 기사는 각 방위와 연계하여 5가지 색이 모두 언급된 조선왕조실록 상 유일한 기사다. 앞서 언급한 태종 6년의 기록과 위의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33개의 기사에서 “방색(方色)”이란 표현은 일반 단어처럼 사용되었을 뿐 방색(方色)이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색인지, 각 색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오방색 중 일부의 색을 가늠할 수 있는 언급은 존재한다.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1743) 윤4월 7일 庚申 2번째 기사에는  
 “訓練院官持六色旗, 在乏東西兩間, 侍射者中東則舉靑旗, 各以其方色, 而中紅心則舉紅旗, 不中者舉采旗, 不用鉦鼓.”<sup>16)</sup>

“훈련원(訓練院)의 관원은 여섯 빛깔의 기(旗)를 가지고 乏(乏)의 동서 양쪽 사이에 있으며, 시사하는 사람이 동쪽을 맞히면 청색 기를 들었다. 각각 그 방색(方色)으로 하되, 홍심(紅心)을 맞히면 홍색 기를, 맞히지 못하면 채색(采色) 기를 들고 정고(鉦鼓)는 사용하지 않았다.”<sup>17)</sup>

라는 기록이 있어 방색 중 청색(靑色)색이 동쪽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방색은 주로 예법과 군사제도와 관련하여 언급되었는데, 이중 군기, 군복, 진법 등 병법과 관련된 내용이 21개 기사로 “방색(方色)”이 언급된 기사의 60%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오방색에 해당하는 색을 검색어로 사용하면 색과 방위를 연계한 언급이 다수 나타난다.

#### 4.3. 기록 검토를 바탕으로 한 토론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간된 신문 지상에

오방색이란 표현은 1980년대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많은 신문 기사에서 오방색과 함께 ‘전통’, ‘한국적’ 등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오방색은 전통색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의 문헌이나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오방색’ 또는 ‘방색’이라는 표현이 발견되는데, 주목해서 볼 사항은 오방색이나 방색에 해당하는 색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일상적인 용어처럼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방색(方色)’이란 표현의 대부분은 군기(軍旗)나 병법과 같은 군대와 관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색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서술하였다는 점은 각 방위에 따른 색이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인식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5. 오방색 색상의 범위 고찰

오방정색과 간색의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황색(黃色), 백색(白色), 흑색(黑色)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흑색(黑色)의 경우, 일부에서는 천연염색에서 완전한 검은색을 구현할 수 없었던 점을 들어 흑색(黑色)은 완전한 검정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방색이 추구했던 색이 검정이었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완전한 검정은 오방정색의 범위에 포함됨이 분명하며, 전통이라는 가치에서는 실제 사용해온 색 역시 오방정색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방정색의 청색(靑色), 적색(赤色)과 오방간색의 녹색(綠色), 벽색(碧色), 자색(紫色), 홍색(紅色)은 다시 살펴볼 여지가 있다.

#### 5.1. 청색(靑色)의 범위

오방색의 오색 중 그 범위가 가장 모호한 것이 청색(靑色)이다. 청색(靑色)은 파란색을 의미하지만,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는 녹색(綠色)을 의미하는 경우도 제법 많으며 검은색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청술(靑 술), 청과(靑 果) 등은 청색(靑色)이 녹색(綠色)을 의미하는 글자로 사용된 경우들이다. 또, 중국어에서 靑絲(청사)는 검은 머리를 의미

한다. 그렇다면 오방정색에서 말하는 청색(靑色)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판 wikipedia(維基百科)에서도 五方色 중 청색(靑色)으로 파란색(RGB 데이터값 : R19, G0, B197)을 보여주고 있다.<sup>18)</sup> 또, 인터넷 두산백과는 오방색에 대한 설명에서 청색(靑色)으로 파란색(R11, G109, B184)을 보여주고 있으며, 녹색(R65, G113, B65)은 오방정색인 청색과 황색 사이의 색인 오간색으로 언급하고 있다.<sup>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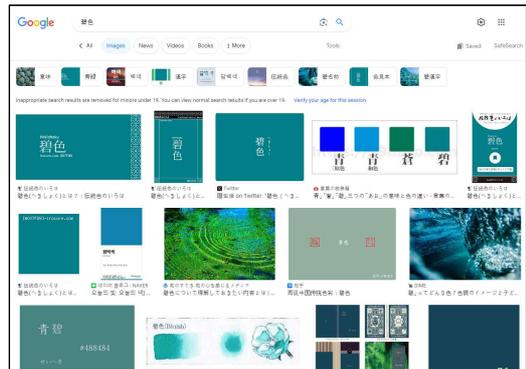


<그림 4> 덕수궁의 단청

그런데 『한국 전통 건축 장식의 비밀』,<sup>20)</sup> 『문화 원형백과』<sup>21)</sup> 등에서는 단청의 색이 오방색을 기반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인터넷 두산백과는 단청에 대한 설명에서 단청의 기본 빛깔을 오방색이라는 언급 없이 청색(靑色), 적색(赤色), 황색(黃色), 백색(白色), 흑색(黑色)으로 지목했다.<sup>22)</sup> 그런데 우리나라 단청에는 녹색이 주조색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그림 4)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오방정색에서 말하는 청색(靑色)에는 녹색(綠色)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청색(靑色)에 녹색(綠色)이 포함된다고 단정하면 녹색(綠色)이 간색 중 하나라는 설명과 상충한다. 결국 오방색의 구체적인 색에 관한 한, 현대의 문헌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세종실록 세종10년 10월 26일 갑진 2번째 기사에서는 청색(靑色)의 범위를 추론할 수 있는 2개의 단서가 나온다. “벽색(碧色)은 동방의 목(木)을 상징”<sup>23)</sup>한다는 구절을 통해 오방색의 청색이 어떤 범위의 색인지 추측할 수 있다. 세종실록의 내용은 좌군의 군기가 청색(靑色)인데 검정색과 유사하여 동방을 상징하는 벽색(碧色)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건의 내용이다.<sup>24)</sup> 이 내용은 청색(靑色)색은 중국

어의 ‘靑絲(靑사)’에서 靑이 검은색을 의미하는 것과 상통하며, 벽색(碧色) 역시 청색(靑色)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물론 이 기사에서 청색(靑色)과 벽색(碧色)을 별개의 색으로 언급하고 있고 당나라의 병서에서 언급된 오방색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오방색이 오행설을 기반으로 파생된 개념으로 중국의 것과 다르다 할 수 없고, 방위에 따른 다른 오방색과 함께 동쪽의 색으로 벽색을 지목하고 있으므로 벽색(碧色) 역시 오방정색 중 청색(靑色)의 하나로 여겼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림 5> google image검색에서 “碧色”을 검색한 결과

碧자는 ‘푸른 옥(玉)’이라는 뜻을 가진 회의문자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碧色’을 검색하면 녹색 기운이 도는 푸른색 등 비취색 계열의 이미지들이 나타난다.(그림 5) 이는 중국과 일본 사이트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다만 검색어를 ‘벽색’으로 하여 검색하면 밝은 파란색 계열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는 현대의 한국인이 생각하는 벽색과 중국이나 일본인이 생각하는 벽색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세종실록에서 언급한 벽색(碧色)은 당나라의 병서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방색에 대한 설명이므로 비취색으로 판단해야 하며 비취색 역시 청색(靑色)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림 6> 청자 (출처:국가문화재포털 <https://www.heritage.go.kr/>)

청색의 범위에 비취색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단서는 ‘청자(靑磁)’라는 어휘의 사용이다. 세종실록 세종원년의 기록에 ‘靑磁’라는 표현이 등장해 ‘청자’라는 단어가 조선 초기에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청자는 파란색이 아닌 비취색이다.



<그림 7> 동래부순절도 (오른쪽은 부분)

또, 임진왜란 당시의 전투 장면을 그린 기록화 ‘동래부순절도’를 살펴보면 많은 군기(軍旗)들이 보이는데, 어두운 파란색 군기와 함께 비취색 군기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방색 적용 관련 언급 대부분이 군기 등의 병법과 관련된 것임을 비추어 보면, 오방색에서 말하는 청색의 범위에 비취색이 포함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김선희는 고연령층(2002년 기준 40대 이상)은 파랑을 Grue의 개념으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노년층의 경우 신호등의 녹색을 파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의 파랑은 Grue에 해당한다는 것이다.<sup>25)</sup> 많은 언어권에서 파랑과 녹색 계열을 통합해서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는데, 넬슨 굿맨(Nelson Goodman)은 이렇게 파랑과 녹색을 모두 포함하는 색상 범위를 Grue라 명명했다.<sup>26)</sup>

## 5.2. 적색(赤色)과 홍색(紅色), 자색(紫色)

오방색 체계에서 홍색(紅色)은 적색(赤色)과 백색(白色) 사이의 색으로, 자색(紫色)은 적색(赤色)과 흑색(黑色) 사이의 간색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자색과 홍색에 대한 인식과 차이를 보인다. 논리적으로 볼 때 적색(赤色)과 백색(白色) 사이의 색은 분홍색 계열이며, 적색(赤色)과 흑색(黑色) 사이는 초콜릿색에 가깝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홍색(紅色)은 채도가 높은 빨간색을, 자색(紫色)은 보라색 계열의 색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적색(赤色)과 홍색(紅色), 자색(紫色)이 어떠한 범위의 색상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百度汉语(hanyu.baidu.com)에서 적색(赤色)은 주홍(朱紅)보다 밝은 색상으로 설명하고, 자색(紫色)을 빨강과 파랑의 합성색으로, 홍색(紅色)은 피처럼 빨간색으로 설명한다.<sup>27)</sup> 일본의 goo 辞書(dictionary.goo.ne.jp)는 적색(赤色)을 삼원색 중 하나인 빨강으로 설명하며, 홍색(紅色)은 생생한 적색(赤色)이라 설명한다. 그리고 紫(자)의 훈독인 무라사키(むらさき)는 다년생 식물로 뿌리가 자색(紫色)이라 설명하고 있는데,<sup>28)</sup> 이 식물의 뿌리는 보라색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적색(赤色)은 “질은 붉은색”으로, 홍색(紅色)은 “사람의 입술이나 피의 빛깔과 같이 질고 선명한 색”으로, 자색(紫色)은 “질은 남빛을 띤 붉은색”이라 설명한다.<sup>29)</sup>

designdb 2002년 5+6월호에는 색의 명칭과 구체적인 색상 값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색(赤色)은 먼셀기호로는 7.5R 4.8/12.8이며 CMYK 값은 C21 M98 Y68 K8(■)로 판단하였으며, 홍색(紅色)은 0.2R 5.2/15.0 (C0 M80 Y60 K0 ■), 자색(紫色)은 6.7R 3.3/8.2(C41 M95 Y45 K40 ■)이라 하였다.<sup>30)</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색(赤色), 홍색(紅色), 자색(紫色)은 오방정색과 간색에 대한 정의에서 설명하는 바와 실제 색 사이에 차이가 크며, 특히 실제의 적색(赤色)과 홍색(紅色)은 그 차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 5.3. 오방색의 범위

권위 있는 기관들에서 발간한 문헌에서 오방색의 청색(靑色), 적색(赤色), 황색(黃色), 백색(白色), 흑색(黑色)에 대해 먼셀 코드 값, CMYK 값 등 제시하고 있으나<sup>31)32)</sup> 이는 각 기관이 판단한 대푯값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어느 정도 넓은 범위의 색을 의미하고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적색(赤色)을 먼셀 코드로는 7.5R 4.8/12.8로, CMYK로는 C21 M98 Y68 K8로 표준화하였으나, 실제로는 표준색과 유사한 색 모두를 적색으로 인식하고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국립현대미술관이 발간한 ‘한국전통표준

색명 및 색상' 발간의 기초 연구자료로 보이는 '한국전통색의 기호화 연구'에서는 한국자수박물관과 석주선민속기념박물관의 자료에 적용된 여러 가지 색들 가운데, 오방색 중 하나로 판단되는 색들을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 표준색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색(赤色)으로 판단한 색의 측정값을 살펴보면 색상(Hue)의 경우 2.8R부터 6.9R, 명도는 3.2부터 4.2, 채도는 11.8부터 15.1 사이에 분포한다. 청색의 경우 색상은 6.4PB부터 8.3PB, 명도는 1.9부터 3.7, 채도는 8.9부터 14.1 사이에 분포하며, 황색은 색상 1.16Y부터 8.9Y, 명도 7.5부터 8.5, 채도 6.9부터 11.2사이에 분포한다.<sup>33)</sup> 더구나 이 분포는 여러 유물에 적용된 색들을 다양한 색명으로 분류하여 조사·표준화한 것으로, 원작자가 오방색에 해당하는 색이라는 인식하고 적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앞에서 언급한 벽색(碧色)로 판단한 색이 유물 원작자의 의도로는 청색(靑色)을 적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유물에 적용된 적색(赤色)이 원작자가 오방색을 적용하겠다는 의지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표2> 국립현대미술관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제시한 색 표준

	국립현대미술관		designdb	
	명셀 코드		CMYK	
靑	6.8PB	3.3/9.2	C89	M56 Y0 K0
赤	7.5R	4.8/12.8	C21	M98 Y68 K8
黃	6.4Y	8.4/10.3	C3	M13 Y89 K0
紫	6.7RP	3.3/8.2	C41	M95 Y45 K40
碧	2.7PB	5.7/10.7	C73	M5 Y4 K0
紅	0.2R	5.2/15.0	C0	M80 Y60 K0
綠	0.1G	5.2/6.2	C82	M44 Y95 K9
硫黃	1.2Y	7.7/7.3	C6	M25 Y67 K1

오방색의 범위는 오방색과 관련하여 언급된 고문헌 상의 설명과 오방색 사용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 유물과 유적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세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오방정색의 청색(靑色)에는 파란 계열의 색뿐만 아니라 비취색 계열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오방색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단청의 중심색이 녹색(綠色)과 벽색(碧色)라는 점을 생각하면, 녹색(綠色) 역시 오방정색 중 하나라는 결론에 이

른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파랑, 빨강, 노랑, 녹색, 비취색, 검정, 흰색이 모두 오방색에 포함되어 대부분의 고채도 색상은 오방색에 포함된다. 또, 오간색까지 확장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색이 포함된다.

## 6. 전통색의 판단조건

전통이란 역사적으로 전승된 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특정 지역을 의미하는 말을 덧붙이려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해당 지역만의 고유한 성향이 나타나야 한다. 또, 이러한 역사적 전승이 해당 지역의 특징인이나 소수가 아닌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때 비로소 해당 지역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오방색의 경우 오행설을 바탕으로 5가지 방향에 의미를 부여하였고, 5가지 계열의 색에 방향을 상징하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오행설은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중일이 공유하는 사상 중 하나다. 그렇지만 조선의 유교숭배정책과 더불어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한민족의 저변에 널리 자리 잡았다는 점과 문화는 주변지역의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오방색 개념이 우리의 전통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원색은 오방정색에 포함되며,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즐겨 사용되어왔다. 근대 이전까지 거의 왕래가 없었던 유럽지역의 국기에 적용된 색 대부분이 오방정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단순히 오방색에 포함된 색을 사용한 것을 두고 전통을 계승했다고 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 7. 결론

오방색은 東西南北과 中央의 5방위를 상징하는 색을 의미한다. 오방색의 기본색은 청색(靑色), 적색(赤色), 황색(黃色), 흑색(黑色), 백색(白色)으로 오방정색이라 하며, 오방정색 사이에서 파생된 색을 오방간색 또는 오방잡색이라 부르는데, 적색(赤色)과 흑색(黑色) 사이를 자색(紫色), 흑색(黑色)과 황색(黃色) 사이를 유향색(硫黃色), 황색(黃色)과 청색(靑色) 사이를 녹색(綠色), 청색(靑色)과 백색(白

色) 사이를 벽색(碧色), 백색(白色)과 적색(赤色) 사이를 홍색(紅色)이라 본다.

그런데 오방색이 적용되었다고 주장되는 대부분의 사례를 위의 기준으로 관찰하면 여러 모순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단청의 주색인 녹색과 벽색은 정색이 아닌 간색에 해당한다. 또한, 여러 서적에서 오방색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색동의 경우에는 녹색과 파란색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위에서 언급된 간색의 범위 해당하는 색 역시 빠지지 않고 사용된다.

여기서 오방색에 포함되는 색의 사용을 전통의 계승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오방색을 파랑, 빨강, 노랑, 흰색, 검은색으로 국한하였을 경우, 오방색의 다섯 색이 모두 사용되고 이외의 색은 사용되지 않은 사례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보편성을 잃어 이를 전통이라 할 수 없다. 물론 녹색이나 벽색도 청색의 영역에 포함하면 그 사례는 많아지지만, 대부분의 고채도 색을 포함하게 되어 동양문화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흔하게 사용되온 색이므로 한국의 전통색이라 부를 수 없다. 더구나 오간색을 사용한 사례도 오방색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거의 모든 색이 정색 또는 간색에 포함되므로 오방색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에게는 오방색의 개념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오방색을 의미하는 ‘방색’이라는 어휘가 아무런 설명 없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의 지식인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방색의 개념 중 동양문화권 이외의 지역과 차별되는 점은 오행설에 근거를 두고 각각의 색에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색의 사용에 있어서 오행설에 기반을 둔 경우에만 오방색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오방정색의 다섯 가지 색의 범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연구자가 언급한 오방정색과 간색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해당 연구자 또는 또 다른 연구자 및 권위 있는 기관이 오방색의 적용사례로 언급한 내용들과 모순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고서를 통한 오방정색과 관련된 내용은 글로 표현된 문헌 외 실제 적용된 색을 확인할 수 없었다. 향후 보다 다양한 고서적의 검토 및 해당 서적에서 언급한 유물에 적용된 실제 색의 분포 조사를 통해 오방색의 다섯 색이 각각 어떤 범위의 색을 의미하는지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1) 한대석. (2022). 서울지역 무신도의 조형에 따른 상징성 연구, 세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남 영암.
- 2) 서예솔. (2022). 장이머우(张艺谋) 감독의 색채 영화 연구 : 토티크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3) 이순만. (1977). 東洋의 自然思想과 韓國의 傳統色彩 研究.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연구소 미술디자인 논문집, p.22.
- 4) 두산백과 두피디아 <https://www.doopedia.co.kr/>
- 5) 김금주와 김재웅. (1988). 오색의 의미에 관한 소고,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p.343.
- 6) 차정원. (2019). 전통 채색화에 나타난 오방색의 조형의식.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p.13.
- 7) 서유리. (2020).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오방색의 색채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경북 경산, p.25.
- 8) 박경은. (2013).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휘(暉), 빛의 노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pp.39-42.
- 9)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창간호부터 2000년 이전의 모든 기사를 원문 이미지와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https://newslibrary.naver.com/>
- 10) 박석홍. (1980. 7. 22). 鎭行日記의 발굴로 內房歌辭 전국分布. 경향신문, p.5.
- 11) 신세미. (1982. 2. 2). 한국인의 색채감각 아직 거칠다. 조선일보, p.6.
- 12)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3월 24일 甲寅 6번째 기사
- 13)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의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3월 24일 甲寅 6번째 기사 번역내용 부분 발췌.
- 14)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1428) 10월 26일 甲辰 2번째 기사
- 1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의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1428) 10월 26일 甲辰 2번째 기사 번역내용 부분 발췌.
- 16)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1743) 윤4월 7일 庚申 2번째 기사
- 17)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사이트의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1743) 윤4월 7일 庚申 2번째 기사 번역내용 부분 발췌.
- 18) 維基百科, <https://zh.wikipedia.org/>
- 19) 두산백과 두피디아 <https://www.doopedia.co.kr/>
- 20) 허균. (2013). 한국 전통 건축 장식의 비밀 : 장구한 역사의 숨결과 아름답고 환상적인 전설의 세계. 대원사.
- 21) 문화원형백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공으로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하는 백과사전이다.
- 22) 두산백과 두피디아 <https://www.doopedia.co.kr/>

23)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1428) 10월 26일 甲辰 2번째 기사  
 24)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1428) 10월 26일 甲辰 2번째 기사  
 25) 김선희. (2002). 왜 신호등의 초록불을 파란불이라 하는가, designdb 05+06, vol.179, pp.34-35.  
 26) Goodman, N. (1995). Fact, Fiction, and Forecas, Harvard University Press. ; 재인용.  
 27) 百度汉语 <https://hanyu.baidu.com>  
 28) goo辞書(dictionary.goo.ne.jp)  
 29)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30) 한국디자인진흥원. (2002). 색채박사 문은배가 이야기하는 우리색 90선, designdb 2002 05+06, vol.179-1, p.12, p.30.  
 31)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1992).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제2차 시안.  
 32) 한국디자인진흥원. (2002). designdb 2002 05+06, vol.179-1.  
 33) 김용훈. (1992). 한국전통색의 기호화 연구 : 민속적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1992, Vol.-No3, pp.80-82.

## 참 고 문 헌

-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1992).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제2차 시안.
- 김금주와 김재웅. (1988). 오색의 의미에 관한 소고, 공주영상정보대학 논문집. pp.341-357.
- 김선희. (2002). 왜 신호등의 초록불을 파란불이라 하는가, designdb 05+06, vol.179, pp.34-35.
- 김용훈. (1992). 한국전통색의 기호화 연구 ; 민속적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1992, Vol.-No3, pp.75-85.
- 박석흥. (1980. 7. 22). 錦行日記의 발굴로 內房歌辭 전국分布. 경향신문.
- 박경은. (2013).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적용한 무용창작작품 「휘(暉), 빛의 노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서예솔. (2022). 장이머우(张艺谋) 감독의 색채 영화 연구 : 토픽 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서유리. (2020).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오방색의 색채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경북 경산.
- 신세미. (1982. 2. 2). 한국인의 색채감각 아직 거칠다. 조선일보.
- 이순만. (1977). 東洋의 自然思想과 韓國의 傳統色彩 研究.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 연구소 미술디자인 논문집. pp.5-27.
- 차정원. (2019). 전통 채색화에 나타난 오방색의 조형의식.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광주.
- 한국디자인진흥원. (2002). designdb 2002 05+06, vol.179-1.
- 한국디자인진흥원. (2002). 색채박사 문은배가 이야기하는 우리색 90선, designdb 2002 05+06, vol.179-1.
- 한대석. (2022). 서울지역 무신도의 조형에 따른 상징성 연구, 세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남 영암.
- 허균. (2013). 한국 전통 건축 장식의 비밀 : 장구한 역사의 숨결과 아름답고 환상적인 전설의 세계, 대원사.

- 선조실록 161권, 36년(1603년) 4월 1일 丁亥  
2번째 기사
-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1428) 10월 26일 甲辰  
2번째 기사
-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1743) 윤4월 7일 庚申  
2번째 기사
-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1406) 3월 24일 甲寅  
6번째 기사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Retrieved 2023.6.  
30. from <https://sillok.history.go.kr/>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 두산백과 두피디아 <https://www.doopedia.co.kr/>
- goo辞書 [dictionary.goo.ne.jp](http://dictionary.goo.ne.jp)
- 百度汉语 [hanyu.baidu.com](http://hanyu.baidu.com)
- 維基百科, <https://zh.wikipedia.org/>
- Goodman, N. (1995). Fact, Fiction, and  
Forecas, Harvard University Press.